

나주 “500만 관광시대 · 20만 강소도시 원년”

윤병태 시장, 신년 기자회견...시정 운영 방향 7대 전략 제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 나주 대전환 3대 핵심 전략 발표

윤병태 나주시장은 17일 “2023년은 500만 나주관광시대,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나주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8기 출범 첫 해 성과와 2023년 7대 시정 운영 방향과 나주 대전환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나주시는 ‘관광’, ‘농업·농촌’, ‘미래 첨단산업’, ‘자족·명품교육도시’, ‘복지 공동체’, ‘제대로 일하는 시장’을 7대 시정 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기반 구축’, ‘청년 패키지 지원’, ‘기관 간 공동체 협력’을 나주 대전환 3대 핵심 전략으로 역점 추진한다.

윤 시장은 먼저 3600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영산강 통합발전 사업을 통해 나주 500만 관광시대를 활짝 열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영산강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뿐 아니라 드넓은 저류지를 활용한 생태 국가정원·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지적천 강변도시 소울로드 조성을 통해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936억원 규모의 나주천 생태물길 사업을 통한 수생태 복원, 산책로 조성, 나주읍성·나주목판아·향교 복원, 금성산 상시 개방을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등 나주만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도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돌아오는 농촌’ 구현에도 힘쓴다. 윤 시장은 공익직불금, 공익수당, 무·유기질 비료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근본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

정적 도입’, ‘농촌 인력지원제도’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280억원 규모의 노안 금안마을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한 대규모 축사시설 철거, 귀농·귀촌 임대주택 조성, ‘4000만원 한도 농촌빈집재생’, ‘영농 창업비·기술교육 지원’ 등 농촌 활력 시책도 소개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연구소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농·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조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3081억원 규모 에너지국가산단 신속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도 역점 추진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위한 청년 주거·취업·평생교육 등 패키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빛가람동 상가공



실·SRF별병합발전소·약취 등 3대 문제 해결을 통한 자부심 넘치는 자족도시 안착도 약속했다.

여기에 배매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24시간 공백 없는 약취감시·관리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 학생과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시책도 강화된다.

나주=조성준 기자

순천, 등록면허세 6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순천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 대상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천333건, 6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납부하는 수시분 등록면허세와는 별도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다.

면허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080-749-1010),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으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담양,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9명 모집

담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 참여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

바우처 택시는 담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고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콜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담양군 관내에서만 운영되며, 운영에 참여할 운송사업자의 인원은 권역별로 정해져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총 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접수는 담양군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에 방문해 담양군 누리집(공공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는 내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담양=조성준 기자

무안, 목포시내버스 운행중단 장기화... 비상 노선 확충

200번 목포역까지 연장운행 · 800번 06시 목포터미널서 무안을 방면 추가 운행

무안군은 18일부터 목포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비상수송노선을 변경 운행한다.

군은 지난 해 12월 12일부터 이어진 목포시내버스 운행중단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 변경 운영을 결정했다.

200번 노선은 당초 무안을-목포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비상수송노선을

무안을-목포역까지 연장 운행하며, 기존 4대에서 2대를 증차하여 총 6대로 운행한다.

800번 노선은 출근 수요를 고려해 오전 6시에 목포터미널을 출발하여 남양, 일로, 문탄을 거쳐 무안읍을 운행하는 버스를 추가로 투입한다.

그 외 비상수송 운행노선은 동일하

게 운행되며, 자세한 운행시간은 무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목포시내버스 운행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가용 합께 타거나 자전거, 택시, 톱/통학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영암 공직자, 취약계층 안부살피기 사업 ‘눈길’

사각지대 발굴 · 특정한 복지안전망 구축

영암군이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공직자가 앞장서는 소외계층 안부살피기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자 안부 사업은 군 신하 9급이상 공직자 717명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717명과 매칭을 통해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겨울 한파와 여름 폭염 기간에 중

점 추진되며 1:1 근접 돌봄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급적 대면하여 안부를 묻고 있으며, 대상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한편 한파 시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

는 등 대상자 개인의 건강과 환경변화 등을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민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특히 큰 계절로, 전 공직자가 나서 안부살피기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등 복지안전망 구축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구례, 유용미생물 6종 연간 500톤 생산 · 공급

구례군은 올해에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용방면에 소재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내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서 EM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BM활성수 등 총 6종의 유용미생물을 연간 500톤 자체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4.943농가에 56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 환경 개선, 축사 약취저감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적극 지원했으며, 특히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유용미생물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자동 공급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유용미생물 교육은 내달 16일 오후 1시에 용방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하반기에 1회 더 추진할 예정이다.

구례=오광범 기자

최대원 광양시의원, 동물복지 정책 관련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과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책임지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노력과 동물 등록업무의 대행자 및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관리하

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담았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 접종 등 진료비 지원액은 연 25만원 이내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연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광양=조성준 기자

‘진도아리랑물’ 설맞이 20% 할인

울금·김 등 300여 개 고품질 농수특산물 판매

진도군은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물이 오는 24일까지 설맞이 2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맞이 할인 행사는 진도아리랑몰에서 판매되는 전체 품목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또 최대 구매자 15명과 추첨 당첨자 20명에게는 캠핑용 워터저그, 비비큐 그릴, 진도아리랑물 포인트 등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진남도지사과 진도군수 품질 인증 제품 등을 판매하는 진도아리랑물은 울금, 전복, 김, 한우 등 300여 개의 고품질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연중 구매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맛 좋고 영양 많은 진도 농수특산물과 함께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노관규 순천시시장, 설 앞두고 민심 살피

전통시장 찾아 시민 애로청취

노관규 순천시장은 17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아랫마을 찾아 시민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심을 살폈다.

이날 방문한 전통시장은 지속된 고물가의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파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노 시장은 점포마다 일일이 돌아보며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노 시장은 “올해 4월부터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통시

장 상인들도 친절 유지,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 박람회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해 오늘과 같이 장날마다 북적북적한 전통시장을 함께 만들자”고 전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랫마을을 시작으로 19일 역전시장, 20일 웃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장성, 산불 진화 임차헬기 본격 운용

신속한 초기 진화... 군민 안전 확보

장성군이 18일부터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를 본격 운용한다.

군에 따르면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일대의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는 임차헬기의 거점이 장성으로 지정됐다. 군은 최근 황룡면 신희리 황룡강 둔치에 헬기계류장 설치를 마쳤다.

10대 2484㎡ 규모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불조심기간인 봄, 가을에 가동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올해 산불 관련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위험요인 제거 등 산불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분실·훼손 부작용 민원인 불편 해소

영광군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했던 종이수입증지는 분실·훼손 등의 부작용과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전자 인승기와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이 급감해왔다.

군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기 위해 전자 납부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12월 30일 개정·공포하였으며, 미사용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1월 중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원수수료 납부 시에는 별도로 종이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 민원을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적정 여부 등을 점검적으로 점검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대포장의 심 제품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용 기기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하여 최종 검사결과 과대 포장으로 확인되면 과대료가 부과된다. /화순=주영현 기자